

AUTHOR 심군식

TITLE 개혁신앙인과 예배

IN 개혁신앙

1호 (1, 1978): 27-29.

개혁신앙인과 예배



심 군 식

개혁신앙의 특징은 진실이요 참이다. 진실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.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상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. 왜 그들을 책망한 것인가? 그 책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책망 하심이 아니다.

그들의 마음 속에 도사리고 앉은 의식과 형식 때문이다. 진실이 없는 그 마음 상태가 책망의 대상이 된 것이다.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, 이것은 현대 교회에 너무나 엄연한 위치처럼 신자들 마음 앞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.

이 무서운 암적 존재인 형식과 의식, 불의와 비진리를 빨리 몰아내기 전에는 진실된 부흥은 있을 수 없다. 가장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을 여기서는 설교 듣는 자세와 기도하는 자세에 중점을 두고

논해 보려 한다.

1. 설교를 듣는 자세

현대교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예배시간이 너무 형식적인 요소로 흘러가고 있는 듯 하다.

예배 시간이니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감, 그것은 좋다. 그러나 참석하여 예배드리는데 그 자세는 반성되어야 하겠다.

마치 의무감에 참석해야 하는 어떤 회의에 참석하듯 뒷자리에 앉시물만 내 밀고 앉은 그 자세. 설교 시간에 정신없이 졸고 있는 그 자세.

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. 설교 시간에 존다든지 잠을 청한다는 것은 한국 교회 만이 있는 희귀한 일인 것으로 듣고 있다.

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아 엄숙한

시간,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긴장된 시간에 어찌 졸음이 올 수 있을까? 이상한 일이다. 세상에 이상한 일이 종종있다.

겨울 나무가지에 꽃이 피는 일이라든지, 제비가 11월이 되었는데도 강남으로 날아가지 않아, 주인안인정으로 비행기를 태워 강남으로 보냈다는 일들은 참 이상한 일임에 분명하다.

예배 시간에, 특히 설교시간에 존다는 것은 이런 이상한 일 중에 넣어야 할 것이다.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고백한 신자로서는 그럴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이다.

옛날 일제시대에 국민학교에서 교장이 아침 조례 시간에 천왕의 글월을 읽는 시간을 종종 가졌다. 그 시간은 학생들과 선생님에게 있어서 가장 엄숙한 시간이었다. 천왕의 말을 대독하는 교장은 그 음성마저 떨려 나왔다.

그 떨려나오는 장엄한 음성을 듣는 순간 장내에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. 머리도 들 수 없었다. 겨울철 감기가 걸려 기침이 나오는 데도, 최대한 참아야 했다.

꽃물이 흘러내려 오지만 소리가 들 수 없었다. 그 시간만은 부동 자세다. 전 신경을 곤두 세우

고 천왕의 말판을 들어야만 했다.

그런데 설교 시간. 이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. 이 시간은 세상에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엄숙한 시간이다. 뒤에서 폭탄 터지는 폭음이 들려와도 뒤를 돌아 봐서는 안되는 긴장된 시간이다.

그런데 현대 교회는 어떠한가? 신자들은 그렇게 엄위한 시간으로 생각하는가?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엄숙한 시간이 일국의 임금 말을 듣는 시간에 비교라도 해서 되겠는가?

하기야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성경 한 장 푹푹 읽는 분들이 아닐 것이니 문제는 덜 심각하겠지만, 천에 하나,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 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.

계명을 어기는 사람에게겐 처벌을 한다. 그러나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이 불신앙의 사람에게겐 하등의 처벌법이 없다. 마치 어떤 교회에서 십일조를 낼 줄 모르는 도적사람에게 직분을 주듯 그냥은 지내가서 별 문제가 아닐 줄 안다.

2. 기도자의 자세

공적 기도자는 공적인 중요한 기도를 위해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한다. 그리고 기도는 진실 해야 한

다. 고향만치고 많은 내용을 증언
부연 하는 것이 참 기도 일 수는
없다.

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이지 않으
면 안되는 중요한 내용을 간단명료
하게 아뢰어야 한다. 그러기 위하
여는 개인 기도 시간이 많아야 한
다.

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기도
하는척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
다. 그런데 슬픈 일은 교회에 기도
하는 사람이 많지 못하다는 사실이
다. 기도하는 척 하는 사람은 많아
도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.

기도하는 척 시간만 낭비 하지
말라.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는
사람이 되라.

긴 시간 앉아서 기도 하는척 하
는 자세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
속이는 외식이다. 형식이다. 바리
새인 적이다. 서기관 적이다. 예수
님의 책망 대상이다.

진실한 언어, 태도 생활 만이 참
신앙적이다. 진실을 떠난 모든 종교
행위는 가증한 것이다.

기도는 결코 사람을 상대한 대화
가 아니다. 하나님 만을 상대한 때

화이다.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도
마음 가짐도 다 알고 계신다. 그
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형식적
이어서 되겠는가?

태도부터 바르게 고쳐야 한다.
혼자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이다.
마치 방송국 아나운서가 아무도 없
는 방송실에서 마이크 앞에 앉았지
만 그 태도는 홀이집이 없음처럼,
기도자의 자세는 긴장되어 있어야
한다.

아나운서가 자기 눈 앞에 아무도
보이지 않는다 해서 졸면서 말할
수 있을까? “응응— —” 잠고
대 같은 소리만 내고 앉아 있다고
해 보자.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
가?

기도자의 자세는 마이크 앞에 앉
은 아나운서보다 더 긴장 되어 있
어야 한다. 말을 듣는 상대가 사람
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.

우리의 예배 드림의 태도나 기도
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 되
어야 하겠다. 진실 한 곳에 신앙의
불길이 솟고, 진실하신 하나님께
서, 동행하여 주신다.

특집 I ... 개혁신앙인의
새생활

목적의식이 분명한 신앙인



김

석

주

(남원주목교사)

1월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눈
부신 태양을 가득히 뒤집어 쓰고
오늘도 신앙인들은 생활한다. 마음
속에 있는 어둠고, 칙을한 죄의 요
소를 거두고 목적 있는 생활인으로
서 생활을 정화시켜 나간다.

어떤 의미에서 신자의 생활은 지
극히 의미있는 생활이며, 하나님
앞에서 자유로운 생활일 뿐만 아니
라 하나님이 거룩과 사랑과 온전하
심을 닦아가는 생활이다. 오래토록
생의 기쁨을 누리며 바른 생활과
행동으로 이웃에게 본이 되는 생활
이다.

그러므로 신자 생활의 중요한 틀
받은 우리 각자가 성경의 원리에
입각한 생활목적의 확고히 하며 내
가 이 사회, 교회, 가정에서 행해
야 할 일이 무엇이며, 살아가야 할
목적의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
는때 있다. 이 목적의식이 분명하
지 않고는 생활의 의의를 찾지 못한
다. 이 목적의 분명할 때 생활의
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며, 생
의 기쁨을 알 수 있게 된다.

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
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을 「하나님을
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
즐거워하는 것이라」고 분명히 가르
치고 있다.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
적인 목적으로 하는 신자들에게 생
의 목적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.